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1회차)

북클럽 팀명	천김투박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년 4월 16일(수요일) / 장 소 : CLC 스터디룸 3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천*환	학번	2020****	이름	박*원
	학번	2021****	이름	김*현	학번	2021****	이름	이*현
	학번	2022****	이름	김*영	학번		이름	
	학번		이름					

* 토의 내용(읽은 책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

21세기의 불평등, 그리고 피케티의 경고

발제자 : 박*원

도서 및 저자 : <21세기 자본> - 토마 피케티

토론 주제 및 선정 이유

-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21세기 자본>에서 토마 피케티는 이러한 불평등이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클 때 더욱 심화된다고 분석한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누진세 강화, 특히 자본에 부과하는 누진자본세 및 글로벌 자본세 도입과 같은 급진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과세를 통해 시장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번 북클럽 모임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불평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와 기업들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토의해보고자 한다.

1. 시장경제에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 개입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 토마 피케티가 주장하는 '누진자본세'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토론 진행

1. 시장경제에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 개입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현

- 먼저 사례를 생각해 보면 국가가 가장 먼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 지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KF94 마스크의 수요가 폭증하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었다. 국가 개입으로 공급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마스크의 경우 지금은 한 장에 천 원 남짓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지만, 코로나 초창기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마스크 묶음의 가격이 몇만 원대까지 올랐었다. 마스크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주로 생산하는데, 민간경제 시장은 단기적 이익, 그리고 장기적 불안감에 많이 요동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치품이 아닌 마스크 같은 의료품과 필수소비재에 대한 타격이 오면 국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

박*원

- 앞서 말씀해 주셨던 상황에서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보조금을 준다면, 마스크의 가격을 직접 개입해서 낮춘다면 하는 방식의 개입이 있어야 지난번처럼 안정화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공공 비축미를 운영하고 있다. 전시 상황이나 재난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식량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쌀을 미리 보충하는 제도이다. 벼 수확에 필요한 농지가 타격을 입는다면 하는 상황 등 공급에 차질이 생겨 쌀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가 비축해 둔 쌀을 시장에 풀어 공급량을 안정화한다.
- 이 외에도 국가 경제문제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는 잦은 노조의 파업과 복지 지출량이 많아지며 국가 재정이 악화하고, 그 밖에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등 이른바 '영국병'으로 불리는 경기침체 현상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당시 수상이었던 마거릿 대처는 노동법 개정과 노조 개혁,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시장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으로 국가 경제 효율성의 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 그밖에는 개인적으로 금융시장에는 가급적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이 국가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개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천*환

- 국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가에서 재난 지원금 제도를 운용했었다. 본인도 국가에서 20만원 가량의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나라에서 준 돈으로 쇼핑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등, 이미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본인은 재난지원금 제도가 당시 당시 일정 인원수 이상의 집합 금지, 식당이나 카페 방문 시 QR 방역 체크 등 제도가 시행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심리를 다시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 제도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 이 점은 책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이 많다. 본인은 저자 토마 피케티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반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책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본 축적의 가속화가 국가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이는 국가의 개입 없는 순수한 자율경제시장의 매킨지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영

- 다만 시장 경제에 국가가 무제한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시적이고 목적을 확실히 가져야만 경제와 시장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나, 이번 대형 산불 피해의 경우에는 국가가 꼭 개입하여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김*현

- 본인은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쪽에 가깝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국가 개입이 없으면 시장 경제가 크게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이 서게 되면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말 신중하게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팬데믹 당시 동네에 있던 가게가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당시, 확진자가 그 가게를 실제로 가지 않았음에도 혼동하여 이야기해서 며칠 후 그 가게가 문을 닫은 적도 있었다.

2. 토마 피케티가 주장하는 ‘누진자본세’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누진자본세 - 자산, 자본에 가하는 누진 과세.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보유 자산의 규모에 따라 누진적인 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토마 피케티는 누진자본세를 통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누진자본세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박*원

- 누진자본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복지정책과 자본가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는 곧 해외 자본의 유입도 막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들이 국가 예산과 해외자본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경제를 거의 지탱하다시피 하는 기업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본과 자산에 대한 누진세율을 부과하게 되는 것은 위험하다.

이*현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에 따라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버는 구조에서, 누진자본세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재분배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자본이 많을수록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이 늘어나니,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게 된다. 국내 자본 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자산이 늘면 늘수록, 자신의 수익에 대한 것보다도 세금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반발심 또한 엄청날 것이다. 누진자본세처럼 자산을 많이 가진 상위계층에 대한 제약과 규제의 성격이 강한 정책보다는, 불평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노동자계층을 지원해 주는 방향성을 가진 정책이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천*환

- 절대 반대이다. 앞서 다른 분들의 의견처럼, 오히려 해외 자본의 유입을 막고 국내 자본을 유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자산의 축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큰 노력을 하고 돈을 버는데, 그 상황에서 자산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누가 피땀을 흘려 돈을 벌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이 있다.

+ 추가적 토론 주제: 부의 세습을 완화시키고 경제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기업들이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야 하는가?

김*현

- 국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사회 안에서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1세기 자본>에서도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국가 간의 격차는 아직도 존재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편이다. 하지만 국가 안에서의 계층 불평등, 부의 불평등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심화되었다. 앞선 누진자본세 관련 토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당연히 자본가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과세나 규제 등의 방향보다는 약자 지원이라는 복지 차원의 국가-기업 협력 정책의 방향이라면 사회 안에서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

- 공정한 출발선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과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 예시로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매달 일정 비율 이상의 자산을 저축할 경우 주거, 창업, 결혼, 미래 설계 등 필요한 자산을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의 협업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추진되면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청년층의 자산 확대와 불평등 해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회차 활동 소감

박*원

- 북클럽의 첫 번째 발제자이기도 했지만, 주제를 선정하면서 조금 두려웠다. 금융재무학과 재학 중이신 분이 있는데 더욱 전문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 분이라 과연 자신의 주제가 적절할지에 대해 생각을 했다. 다행히 토론이 잘 되고 다들 주제가 좋다고 해 주셔서 뿌듯했다.

김*현

- 경제 관련 분야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무지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책도 주제도 어려웠지만 인터넷 검색이나 챗GPT 등을 활용해 책에 나오는 이론들을 대입할 수 있는 사례들을 주로 정리하면서 활동을 준비했다. 이론보다는 사례 위주로 이해하는 것이 재밌었고 오늘 토론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마거릿 대처의 정책 등의 사례 위주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재미있었다.

김*영

- 첫 번째 책이지만 내용이 어려워 자신이 경제, 정치 분야에서 무지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부분에서 더욱 자세하고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도 어려운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다.

천*환

- 방대한 분량의 경제학 관련 책이란 것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 책 내용도 결코 쉬운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책 내용을 실제 사례들에 접목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북클럽 활동 과정에서 평소에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다음 활동에 앞서 독서와 토론이라는 일에 자신감과 동기 부여가 되는 것 같았다. 다음 활동도 매우 기대가 된다.

이*현

- 21세기 자본을 바탕으로 한 이번 토론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부의 불평등과 세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와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교육, 복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토론을 통해 앞으로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게 좋을 지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회차 활동 사진

2025년 4월 16일

참가자대표 : 천*환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2회차)

북클럽 팀명	천김투박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년 4월 30일(수요일) / 장 소 : C Square 스터디룸 Sienna Orange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천*환	학번	2020****	이름	박*원
	학번	2021****	이름	김*현	학번	2022****	이름	김*영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 토의 내용(읽은 책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

발전 뒤의 이면, 우리 결의 불평등에 대한 고찰

발제자 : 박*원

도서 및 저자 : <21세기 자본> - 토마 피케티

토론 주제 및 선정 이유

-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 중 하나이다. 먼 과거, 사유재산의 개념이 발생한 이후로 문명의 발전 속에서는 항상 계급, 신분, 계층의 격차가 존재해 왔다. 대한민국의 사회 기반 시설과 경제 시스템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도 역시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발생했으며, 어렵지 않은 곳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는 어떤 일들이 있고, 해결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는 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주제 -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김*영

- 본인 전공이 사회복지 쪽이다 보니, 불평등 문제를 많이 다룬다.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로는 거주, 교육의 격차와 범죄 문제가 대표적이다.
 - 교육 격차 문제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간의 교육 접근성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거나,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은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머물게 된다. 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게 되어, 사회적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세대 간 빈곤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원

- 고등학교 때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잠깐 다닌 적이 있었다. 사교육비가 비싼 것이야 이제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체감해 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 학원에서 역사 연표 부록 같은 종이 몇 장을 15,000원에 팔기도 했고, 한 달 용돈이 모두 학원비로 빠져나가 버릴 정도였다. 심지어는 수업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4번 수업을 받는 데 3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업의 질이 아주 뛰어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단순 수업료가 비싸다는 인상 그 이상의 느낌이 들었다.

김*영

- 본인은 학교에 다닐 때, 학원에 다니는 반 급우들끼리의 모임이나 그룹이 형성되어 있던 기억이 난다. 함께 학원 숙제를 돌려서 하거나, 학원 수업 이야기를 하는 등, 그런데 단순 관심사나 생활의 차이라기보다는, 학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의 사교적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단순 교육의 격차뿐만 아니라, 교우관계나 학교생활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현

- 역시 교육 격차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본가가 있는 쪽에는 학원이 없어서, 학교에 다닐 때 다들 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중학교 때 변화한 지역으로 옮겨간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활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졌었다. 예체능 이야기를 해 보면, 예체능은 일반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와는 방향성이 많이 다르다. 큰 도시로 이사 갔던 친구 중 예체능을 하던 친구들을 들어보면, 피아노나 기타 등 악기 쪽으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 레슨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레슨비가 절대 만만치 않고, 실력 있는 연주자에게 배우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레슨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천*환

- 예체능 쪽은 단순히 재능과 노력의 영역뿐만 아니라, 집안 형편이 받쳐주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돈이 드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고, 이것이 무조건 불공정하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본인 역시 음악을 한때 하고 싶었으나 고등학교 이후로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들에 부딪혀 '취미로만 남기자.' 일단 대학부터 가자는 마음을 잡았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된 한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아쉬움은 생각보다 더 매우 오래간다.

김*현

- 여유가 있는 쪽은 도전 정신이 풍부한 것 같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비결이 뭔지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대 청년들에게 그것이 과연 통할지 의문이다. 우리는 실패하면 다음이 없어서 누구보다 실패에 예민하고, 안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천*환

- 경제적 여건은 삶의 질이나, 경험, 태도 등 다양한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집이 잘사는 친구가 있었다. 2010년대 초반 기준으로 마당이 딸린 복층의 주택을 부모님 소유로 살고 있던 친구였다. 확실히 행동 하나하나에 여유가 넘치고, 다양하게 쌓은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 다들 신기해해서 주변에 친구도 많았던 기억이 난다.

박*원

- 확실히 유/아동기, 청소년기의 경험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고, 단지 그것이 경제력과 직결된다는 점이 안타깝다. 비싼 돈을 내고 참가하는 좋은 초등학교의 체험학습이나 해외 활동들 같은 프로그램은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잘 시행하지 않기도 하고, 정해진 커리큘럼 내에서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런 활동들이 있고 없고, 얼마나 자주 하나에 따라 벌어지는 격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 이 경험치라는 것은 아이들 본인들에게는 '경험을 쌓는다'라는 것이 잘 체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커서 어릴 적 했던 활동들과 연관된, 혹은 비슷한 것을 보고 '어, 나 저거 알아!'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영

- 부모님이 온 세상인 아이들에게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해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들이 확실히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 앞서 말했던 거주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면, 거주지 문제는 오늘날 전원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주거 수준이 확연하게 갈린다.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일부 계층에게는 아파트 입주조차도 어려운 현실이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고시원, 쪽방, 반지하, 비닐하우스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반지하 주택에서 생활하거나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냉방시설 없이 좁은 고시원 방에서 지내야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불평등은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교육, 사회적 관계 등 삶의 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천*환

- 범죄 문제도 불평등과 연관이 깊다고 생각한다. 생계형 범죄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절도와 같은 경범죄가 발생했을 때 용의자를 체포하면 생계곤란자 혹은 노숙자인 경우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쳤다가보다는,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차라리 냉난방이 되고 주거시설과 식사가 보장되는 교도소 수감생활이 현재의 생활보다 낫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범죄자들보다도 열악한 생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김*영

- 범죄 문제는 경제적 격차가 심화될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화되고, 기본적인 생계조차 힘든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 조성원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 불평등이 1% 상승할 때 살인 범죄율은 19%, 절도는 9.3%, 폭력은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우석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임강사 역시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 빈부격차가 살인 범죄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도 소득 불평등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가 다수 존재하는데, 1973년 미국 경제학자 아이작 에를리히는 소득격차가 커질수록 범죄율이 비례해 증가한다고 발표했으며, 1982년 주디스 블라우와 피터 블라우는 소득 불평등이 살인과 폭력 범죄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소득격차가 심해지면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 경제적 격차로 인해 범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원

-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것도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시행 중이다. 우리 학교 광고홍보학과를 졸업하신 핫도그 가게 창업자 선배가 특강을 오셔서 들었었는데, 정부에서 주는 소상공인 지원비가 상당하다고 했다. 직원들이 일하면서 버는 소득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처음 창업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도 상당하다고 했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막을 수는 없기에, 국가가 보조해 주는 식으로

가는 것 같다.

-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

김*영

- 이번에 독감에 걸렸을 당시, 키트 검사 + 수액을 받았을 때 12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다. 다행히도 실비 보험이 있어 나중에 약 9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간단한 감기나 계절 질환 등은 저렴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큰 병이나 수술 같은 경우는 여전히 큰돈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박*원

- 그렇다. 취약계층들이 의료서비스를 잘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경제력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홍보가 잘되지 않는 느낌이 있다. 우리도 대한민국은 의료제도가 잘 되어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시행 중인지는 잘 모르기도 하고.

천*환

- 사회학과에서도 경제적 불평등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다. 2학년 때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의 흥행과 주식 투자 열풍이 일어날 수 있던 사회적 배경으로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원인이라고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었다. 오징어게임과 같은, 상금을 두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이나 주식, 가상화폐 투자 모두 단기간에 큰 금액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월급을 받는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으로는 채무 상황과 저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예측이 힘들더라도 단기간에 큰 금액을 벌 기회가 있는 투자나 복권, 로또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했다.
- 본인 역시 용돈을 받지 않고 알바비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요즘은 물가도 오르고 해서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주변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친구가 몇 있는데, 수익이 잘 나오면 백만 원 단위의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잃거나 별로 얻지 못해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다. 본인은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이 우선이라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절대 안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활동 완료 후 소감

김*영

- 이번 모임에서 교육, 거주지, 범죄라는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봤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의료 관련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것도 좋았다. 의료문제에서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료 정보 접근성 역시 경제력과 연관 지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불평등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천*환

- 어쩌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을 완화하기 위

한 국가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 학기 법학과 교수님의 교양 강의를 들었는데, 빈곤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모두가 누릴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지원

- 한국 사회에서 느껴지는 차별에 대해 팀원들의 생각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색다른 시간이었다. 대표자로서 진행하는 마지막 주인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어 아주 좋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김*현

- 책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생활 속에서 느꼈던, 혹은 보았던 경험들을 나누어 봤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것에 한편으로는 공감되기도 했다.

2회차 활동 사진

2025년 4월 30일

참가자대표 : 천*환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3회차)

북클럽 팀명	천김투박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년 5월 16일(금요일) / 장 소 : 온라인 진행(Google Meet)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천*환	학번	2020****	이름	박*원
	학번	2021****	이름	김*현	학번	2022****	이름	김*영
	학번	2021****	이름	이*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 토의 내용(읽은 책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

차별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배신

발제자 : 김*영

도서 및 저자 : <선량한 차별주의자> - 김지혜

토론 주제 및 선정 이유

- 이 책은 "나는 차별하지 않아"라고 믿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차별에 가담하게 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별, 인종, 계층, 장애, 난민 등등,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를 다양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량하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형태의 차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번 토론을 통해, '나와 무관하다고 여겼던 차별'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주제

1. 난민 수용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인가, 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혜인가?
2.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정당한 권리 주장인가?

토론 내용

주제1. 난민 수용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인가, 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혜인가?

천*환

- 본인의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난민 수용이 마냥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난민 범죄 관련 기사를 접하다 보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편인 것 같다.

김*영

- 부정적으로 인식한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본인들도 힘든데 남을 왜 돕느냐는 인식도 많고...

박*원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지구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난민 수용 정책을 유지하는 데 이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는 것 같다. 다만 이전보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로 인해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난민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난민을 반대하는 나라나 국민들의 의견만을 수용한다기보다는, 먼저 해결할 국가 내부적인 문제들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난민 문제는 후순위로 두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천*환

- 동감이다. 예시로 난민들을 수용하는 경우, 난민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난을 겪는 국가의 국민들은 자국민의 주택난 해결보다 난민들의 주거 공간 해결을 먼저 한다는 느낌을 받아 반발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현

- 어떻게 보면, 난민은 전쟁뿐만 아니라 국가 상황, 재난, 정치적 박해 등등 여러 상황에 대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 휴전 중인 국가인 만큼, 언제 난민의 신분이 될지 모른다. 우리가 난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자국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방향이 아니라, 우선시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이며 지원님의 의견처럼 후순위로서의 난민 수용 정책으로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입장이다.

김*현

-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는 배려와 특혜의 경계에 대한 문제. 모두가 그럴 것은 아니지만 난민들이 피난 온 국가에서 제공하는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여겼을 때가 문제가 될 것 같다. 난민에게 자국민보다 더 많은 특혜를 준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면 이것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 같다.

김*영

- 이렇듯 난민은 법적 권리를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불법체류자, 위협, 타자 등으로 낙인찍혀 배척되곤 한다. 이는 다수 시민의 불안감과 편견에 기반한 반발로 이어지며 '우리도 힘든데 남 도움 여유가 있느냐'는 식의 배제 논리를 강화한다. 이렇기에 인도주의와 국가의 이익, 권리의 보편성과 현실적 요인 간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 우리는 '차별의 본질을 고민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가는 난민 수용이나, 혹은 난민에 대한 정책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박*원

- 개인적으로는 전 지구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난민 수용 방침을 유지하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국과 난민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인 불경기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몰려드는 것도 문제다.
- 또한, 난민을 수용했다면 수용한 난민들을 마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공할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할 요소라 생각한다.

이*현

- 최소한의 생계유지 정도의 선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국가에 완전히 정착한다기보다는, 일종의 피난처에 가까운 느낌이기 때문에 자국민 이상의 복지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 않다.

천*환

- 역시 자국민들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느껴질 수 있는 과한 혜택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만약 피난에서 그치지 않고 그 국가로의 정착을 원하는 경우, 주로 주거지, 취업과 교육, 각종 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정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국민들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생명과 직결된 의식주에 대한 복지는 주어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주거지의 경우에는 자국민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되, 위생이나 식수, 식사에 대한 복지는 당연히 주어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현

- 동의한다. 만약 기존 국민을 향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결코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하며,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천*환

- 종교적 관점의 충돌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슬람교를 비하하거나 깎아내릴 의도는 없으며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난민 문제와 가장 크게 연결되어 있는 종교이기도 하고, 타 종교와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
- 또한 난민의 정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난민에 대한 국제적 정의로는 1951년 제정된 유엔 난민 협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당 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으며,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박*원

- 그런데 한국에서는 난민의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도 유엔 난민 협약에 따른 정의를 적용하며, 2012년 제정된 '난민법'을 통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식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로서 구분하는데 유엔 협약 기준에 부합하고 난민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정식으로 인정되어 거주와 노동이 가능하고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민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전쟁, 박해 등 여러 이유로 본국 송환이 위험하고 어려운 경우엔 인도적 체류자로서 구분되며 거주가 가능하지만 권리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김*영

- 그만큼 다양한 사회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난민의 정의가 전쟁, 박해,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박*원

- 덧붙이자면, 자국민이나 먼저 온 난민들은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혜택이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고 그곳에서 비웃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난민의 수는 500여 명이었고 이는 타 국가의 사례보다 매우 적은 수치다.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시선은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다. 일단 난민이라는 단어 자체에 선입견을 품고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라, 그런 이미지에 대한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키워드는 바로 '시선'이다. 이런 시선이 나아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주제2.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정당한 권리 주장인가?

김*영

- 본인이 발제자인 만큼, 정리된 의견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다.
-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절박하고 정당한 권리의 외침이라고 생각한다. 뉴스를 통해 보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보장 시위로 인해 출근길이 지연되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불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관련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바로 2017년 10월 발생한 '신길역 리프트 사고'이다. 이것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사회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얼마나 소홀히 다뤄왔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사건 이후 장애인 단체들이 시위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이해는 하지만 방식이 과하다'라는 비판이 많았다. 본인은 이 반응이야말로 책에서 말하는, 그리고 제목과도 같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느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면 다수의 일상적 편의보다 소수의 기본권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리 주장은 불편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조차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회는 과연 연대와 정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이*현

- 정리 너무 잘해 주셔서 잘 들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뉴스로만 접했을 때는 절대적인 소수의 행동에 대해 다수가 불편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책을 읽고 생각해 보니 시민의 불편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시위의 목적이나 본질적으로 접근해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옳다거나 좋은 방식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생각은 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권리 주장은 당연한 이야기다.

박*원

- 본인은 일단, 시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단 시위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구호 자체도 사실 납득이 잘되지 않은 편이다. 신길역 리프트 사고의 문제는 리프트 기계의 문제로 인해 나타난 것이 원인이지, 그것이 장애인 이동권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는 아닌 것 같다. 시외버스나 다른 지하철역 등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잘 구비되어 있고, 시위까지 별일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 수단이 그렇게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김*영

- 말하고 싶은 건, 공공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경우는 잘 보이기 는 하지만 장애인 분들은 비장애인인 우리들이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지하철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도 거동이 가능한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느라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필요로 하는 지체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엘리베이터를 휠체어 탄 사람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 정도밖에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협소한 것이 현실이다.

박*원

- 그렇다면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리프트 기구를 자주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것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효율적인 장애인 이동에 대한 수단이 더 있을까?
-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김*영

- 이동뿐만 아니라 화장실, 식사 시설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들 모두 장애인들은 불편하게,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사용한다. 엘리베이터 역시 그렇고..

천*환

-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지만 시위의 방식과 이후 여파는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위를 좋게 바라볼 수 없다. 지하철을 탈 때, 전동휠체어를 끌고 타시는 분들을 꽤 자주 보는 편이다. 그럴 땐 다들 자리를 비켜주거나 이동을 도와주는 등 배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비장애인분들이 많았는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 이후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뀐 탓일까,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 승객이 있으면 다들 힐끔거리며 쳐다보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하는 시선들이 느껴진다. 시위 역시 비장애인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 시위 관련 영상을 보던 중, 조부모님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이동하던 승객이 시위 때문에 전철이 멈춰 이동하지 못하자 그 울분을 시위대에게 토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시위에 참여한 한 장애인이 '택시 타고 가세요.'라는 망언을 한 것을 보고는,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시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한다. 장애인의 수는 무시할 수 없긴 하지만 비장애인에 비하면 소수이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옳지만 그들의 목적을 위해 절대 다수에게 불편을 안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시간,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할 명분이 있는가?

김*현

- 장애인 이동권이 법제화된 명확한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 배려를 받아야 하는 문제는 맞지만 지금 사회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의견 제시를 하는 게 강하다고 생각해서,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다수가 생계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피해를 보는 것이 소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본인은 아니라고 느낀다. 그래서 시위 방법 자체가 아주 부적절하다고 느낀다. 실제로 시위가 미신고된 장소에서의 불법집회, 승하차 반복을 통해 고의로 운행을 지연시키고, 심지어는 일부 기물을 파손하여 공동 재물손괴죄로 입건되는 경우도 여럿 있다. 이 정도까지 온 거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그런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절박함 때문이라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또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위법성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적이 정당한데 수단이 위법하다면, 목적을 제한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김*영

-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나니, 시위 방법에 대한 것에는 본인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단 우리 토론 주제로 돌아오면, 권리 주장은 정당하지만, 방식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다. 시위 방식에 대한 개선이나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격한 시위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봐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면 어떤 식으

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천*환

- 수단이 위법하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 동의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위법 수단을 사용한다면 목적 달성을 막는 것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 같다. 장애인들보다 비장애인들이 많고, 거리나 지하철을 보면 실제로도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장애인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장애인들이 실제로 적게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간단한 화장실 이용이나 에스컬레이터 사용도 장애인들은 복잡하게 타인의 눈치를 보며 이용하기에 바깥으로의 외출을 기피하게 되고, 그렇기에 사회시설들은 비장애인들을 기준으로 설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원

-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위법성 문제가 굉장히 흥미롭다. 무엇보다 위법한 수단으로 목적을 쟁취하려면 사람들은 따라주지 않는다. 결국 권리주장의 최종 목표는 사람들의 공감과 납득을 얻는 것인데. 위법적인 수단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오히려 비난을 받을 뿐이다.

김*영

-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장애인의 생존과 권리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지만 그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특히 통학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실질적인 불편을 겪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학교나 직장에서 이해받지 못할 때 생긴다. 교수가 “미리 일찍 나오지 그랬냐?”라고 말하며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상황은 결국 장애인의 권리뿐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한 시민의 정당한 입장조차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 이처럼 시위에 공감해 준 시민들이 오히려 또 다른 구조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결국에는 자신이 역으로 부조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만들며,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가 새로운 갈등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대학, 회사, 기관 차원에서 시위 상황에 대한 제도적인 이해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무리 후 소감

김*영

- 오늘 함께 나눈 두 가지 주제 난민 수용, 장애인 이동권은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공통된 질문 하나가 담겨 있었다고 생각한다. 바로, “나는 차별과 얼마나 가까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난민’을 타자화하는 시선, ‘불편’을 이유로 정당한 시위를 비난하는 감정 이 모든 것이 책에서 말하는 ‘선량한 차별’의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구조 속에 있었고, 때로는 그 구조를 묵인하며 살아왔다는 사실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오늘 토론이 단순한 비판이나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나아가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자체가 차별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더 민감하게 사회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박*원

- 예멘 난민 사태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 등, 대부분의 의견이 통일되어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갈리고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놀랐다. 내 생각과 반대되는 주장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 귀중한 시간이었다. 한국 사회 안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소수자들이 많은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천*환

- 우리도 항상, 언제든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비장애인이자, 이성애자로서 흔히 '일반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살아오던 것들이 한순간에 박살 날 수 있다. 큰 사고를 당하거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스스로를 재정의하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소수자가 되어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내가 그 시선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항상 무서운 생각이 든다. 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항상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같다.

김*현

- 본인도 비슷한 의견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갈려서 놀랐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주제들이지만 민감한 주제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누지 못했는데 흥미롭게 이야기 나누어서 좋았다.

이*현

- 방금 토론에서 본인 주장을 다시 인용하자면, 다수의 일상적 편의보다 소수의 기본권을 먼저 보장해야 비로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리 주장은 불편을 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불편함조차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회가 과연 연대와 정의를 떳떳하게 지향점으로 삼을 수에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 사회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 역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

3회차 활동 사진

2025년 5월 16 일

참가자대표 : 천*환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4회차)

북클럽 팀명	천김투박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년 5월 21일(수요일) / 장 소 : CLC 스터디룸 6번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천*환	학번	2020****	이름	박*원
	학번	2021****	이름	김*현	학번	2022****	이름	김*영
	학번	2021****	이름	이*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 토의 내용(읽은 책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

사람은 혀로도 해칠 수 있다: 언어와 칼날

발제자 : 천*환

도서 및 저자 : <말이 칼이 될 때> - 홍성수

토론 주제 및 선정 이유

- 지난 회차 진행했던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시선과 인식에 대한 심도 있는 관점을 제공했다면, 이번 <말이 칼이 될 때>에서는 직접적인 언어, 비언어적 차별과 혐오의 표현에 대해 다루고 있다. 201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남녀 갈등과 더불어 장애, 성소수자, 외국인 등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상하리 만치 참신하고도 다양한 혐오와 차별의 표현들이 범람하고 있다.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과 가장 비슷한 우리마저도 온갖 혐오 표현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각자의 경험 속에 깃들어 있는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혐오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주제

1. 일상에서 겪었던 혐오 표현에 대한 에피소드, 사례 등을 나누어 보기
2.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 영역에서의 혐오 표현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3. 혐오 표현에 맞서는 대항 표현과 미러링, 옳다고 볼 수 있는가?

토론 내용

주제 1. 일상 속에서 겪었던 혐오 표현에 대한 에피소드, 사례 등을 나누어 보기

이*현

- 생각보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들이 많다. 친구끼리 재밌게 웃자고 하는 장난 같은 내용이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표현들이 많다. 가령 얄전하고, 내성적이거나 외적으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남성에게 '게이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충분히 혐오 표현이라 생각된다. 오히려 '밈'화되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쓰고, 또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느낀다.

천*환

- 맞다. 본인도 활동적인 운동보다 가만히 앉아 무언가를 만들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걸 즐기는데, 어릴 적에 들어보았다. 당시에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 할 일이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편이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혐오 표현을 찾기 쉬운 곳을 꼽으라 하면 본인은 주저 없이 게임 채팅창이나 보이스에서의 혐오 표현 남발을 예시로 들 것이다. 저연령층 사용자가 많은 게임에서는 속히 '패드립'이라 일컫는, 사용자의 가족관계를 모욕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여성 사용자에게 대한 혐오나 성희롱이 많은 편인 것 같다. 게임을 못 하는 사용자에게 '남자친구 따라서 피시방 왔네' 등 성별을 단정 짓거나, '어디 살아?', '몇 살이야?'와 같은 직접적인 정보를 얻어내려는 행위들이 자주 보인다.

김*현

- 본인도 게임을 자주 하는 편. 게임을 하다가 성적인 모욕이 담긴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

천*환

- 요즘엔 채팅 말고도 인게임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마이크로 대화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목소리로 어렴풋이 여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태도가 돌변하곤 한다. 무시하는 태도라던가,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목소리를 깔고, 챙겨준다든지, 오히려 여성을 보호받아야만 한다는 약자로 규정짓는 태도가 드러나서, 그런 것들 보면 불쾌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여성 사용자에게 패배했을 경우에도 '다른 남자가 대신 해 줬네.'라는 반응이 오거나 등등, 게임 속에서 참 다양한 표현을 본다.

박*원

- 게임을 단순히 못 한다 싶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너무 극단적이고 과한 표현들이 남발되는 것 같다.

천*환

-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혐오 표현이 일종의 mimetic 작용해서 무분별하게 모르고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남들이 다 하고, 듣기에 재밌고 주변인들이 재밌게 쓰니까 본인도 그것을 유머로써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현

- 본인은 오히려 그것이 혐오 표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을 더욱 깎아내리고 배척하려고 사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박*원

- 알면서도 쓴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 같다.
- 본인이 직접 겪은 적도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유럽으로 가족 여행을 갔었다. 스위스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다. 알프스산맥 중간쯤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기로 되어 있었는데, 알프스산맥은 지형이 매우 험해서 꼭 리프트를 이용해야 갈 수 있었다. 그날따라 눈도 많이 왔기 때문에 유리막이 있는 리프트를 타야 안전했던 상황이었다. 유리막이 없는 리프트도 있었다. 그런데 직원들이 본인 앞에 있던 백인 부부에게는 유리막이 있는 리프트를 태우고, 본인 가족은 유리막이 없는 것을 태워 보냈다. 지켜보니 가족들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인 사람들은 유리막이 없는 리프트를 태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김*현

- 친구들과 대만 여행을 갔을 때, 새치기하는 사람을 보고 친구가 '저 사람 중국인일 거야.'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천*환

- 우리나라에서 요즘 반중감정이 심해진 느낌이 있다. 물론 실제 사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인터넷이나 주변에서는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마구 표출하는 게 보인다.
- 특히 조선족에 대한 혐오 감정이 심하다고 느낀다. 책에서도 언급된 영화 '청년 경찰'이나, '범죄도시' 속에서 나타나는 조선족 폭력배들의 이미지가 현실에서도 있다고 느끼는 듯하다. 청년 경찰 영화 속 이미지 때문에 조선족들이 시위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본인도 조선족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 하지만 깨지게 된 계기가 여럿 있는 편, 주변에 중국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조선족분들을 만나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즐겨 보는 여행 유튜브가 중국어를 모르는 채로 중국 여행에서 힘들어할 때 조선족 부부를 만나 식사도 제공받고 안내도 받는 등 많은 도움을 주려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조직 폭력배 같은 이미지와는 사뭇 거리가 먼 느낌이었고, 그것이 선입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영

- 일상에서 겪은 혐오 표현을 떠올려보니,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버지와 경험은 자연스럽게 생각났다. 아버지께서는 종종 운전 중 다른 차량의 미숙한 운전 행동을 보시면, 상대 운전자가 남성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네"라고 단정 지으시고, 실제로 여성이 운전 중일 경우에는 "역시 여자 맞았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특정 상황에서 여성을 운전과 연결 지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성 전체가 운전을 못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 가두고 평가하는 성별 기반 혐오 표현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 또한, TV를 보다가 특정 연예인을 보며 "저렇게 뚱뚱하면 누가 좋아하겠나?"라고 하시는 말씀도 자주 접했다.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냥 넘기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표현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농담처럼 흘러가는 분위기였지만, 생각해 보면 이 역시 외모와 체형을 근거로 특정인을 평가하고 비하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발언들은 여성, 비만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듣는 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주제2. 사적 영역에서의 혐오 표현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박*원

-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갈리는 쟁점은 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인데,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인들뿐 아니라 잘 알려진 명성 있는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들도 혐오 표현을 써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에 망정이지, 그냥 넘어갔다면 분명 의문과 반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처벌이 행해졌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 표현 사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규제나 금전적인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어야 한다. 스포츠 선수가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 또는 제스처를 했을 때, 구단이나 협회에서 출전정지 조치를 하거나, 관객이더라도 스타디움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불특정 다수에게 표현이 노출되는 곳이라면 더더욱이다.
- 중국을 예시로 들었을 때, 중국인이 중국 혹은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한 비판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외국인이 중국 혹은 북한 여행을 가서 공산당이나 김 일가를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는 행태를 보고 우리는

억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비판이 혐오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천*환

- 혐오 표현이 잘못된 것에는 동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반대 입장.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도 발생한다.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조항을 마련해도 문제고, 세세하게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자신이 하는 말이 혹시나 혐오 표현으로 규정되어 처벌받을까 두려워 일반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표하는 것에도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현

- 본인도 반대 입장이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를 자체를 혐오적인 표현에 대해 마냥 좋은 표현이 아닌 것을 똑바로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김*영

- 사적 공간에서의 발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가족이나 친구 간의 대화처럼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발언까지 법적으로 규제하게 된다면, 이는 곧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의 표현 자체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혐오 표현이 분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맞지만 모든 표현을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와 부작용이 따르기에,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가정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의 교육을 통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현

-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알아들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 혐오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분명 존재하고, 그것이 법제화된다면 분명 억울한 부분들도 생길 것이다.

주제 3. 혐오 표현에 맞서는 대항 표현과 미러링, 옳다고 볼 수 있는가?

이*현

- 대항 표현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혐오 표현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혐오 표현을 막는 방향이 아니라, 똑같이 되돌려준다? 그것은 곧 또 다른 혐오를 낳는다. 현재 남녀 갈등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나아지기는커녕 혐오가 더욱더 세분화되고 양극화되고, 짙어진다. 단편적인 상황 안에서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천*환

- 1992년 발생한 LA 폭동 사건처럼, 혐오에 대한 반대와 저항의 움직임이 변질되어 분노 표출의 대상이 무작위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시작은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과 경찰에 대한 경미하고 터무니없는 결과에 흑인 사회가 분노하여 점차 시위와 폭동으로 변질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인

사회도 큰 피해를 보았다. 백인뿐만 아니라 한인들과 타 인종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인 폭력과 재물손괴, 약탈과 방화가 이루어지며 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혐오의 대상이 더욱 확산되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지양해야 한다고 여긴다. 혐오 표현의 근원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박*원

- 함무라비법전처럼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 유머러스하게 넘기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남미 사람들은 아시아인에 대해 엘 치노(el chino), 눈 찢기 등 제스처를 취하면 아시아인들은 과테말라인(남미에서 못생겼다는 이미지로 알려짐)이라며 대응하기도 한다. 한국인 코미디언 김병선 씨는 현재 멕시코에서 스탠딩 코미디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데, 오히려 남미 사람과 아시아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인종차별 표현을 서로서로 주고받으며 유머러스하게 넘기고, 코미디 무대가 끝나면 서로 존중해주며 웃고 즐기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김*영

-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현재로서는 한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 무조건 공격적 대항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 것보다는. 방금처럼 좋게 좋게 풍자와 유머로서 만드는 것처럼. 반짝하고 흘러가는 느낌으로 될 것 같다.

이*현

- 우리가 대응할 수 있으려면, 확실히 여러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김*현

- 물론 유머로서 받아들이는 방법도 좋지만, 모든 사람이 웃고 넘길 만한 주제가 아니기도 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따로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토론 후 소감

천*환

- 이 책을 고른 계기는, 일상에서 남발되는 혐오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 삶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깨달았던 책이기 때문이다. 몇 년이 지나 다시 읽어도 그다지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이 조금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바뀌면 될 일이다. 다들 사이 좋게 지냈으면 한다.

김*영

- 살면서 직접 겪었던 에피소드들 이야기해서 좋았고, 구체적인 사례와 표현들에 대한 정의들을 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나 이외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양한 답변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현

- 여러 주제, 혐오와 차별 관련 이야기는 친구끼리도 웃고 넘기거나 금기시되는 주제.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박*원

- 생각보다 주제가 쉽다고 느껴서 '아, 쉽겠구나' 라고 느꼈는데, 정작 생각을 해보니 막막해지는 것이 있다.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는 느낌이다. 혐오 표현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내는 게 사회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더 어려웠다. 우리라도 혐오 표현 사용하지 않도록 자중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현

- 처음엔 쉽다고 느꼈다. 사례 위주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씩 기억이 나겠지 했는데, 준비할 때 막막했다. 게임을 많이 하는데도 처음 사례 이야기 전까지 관련 경험을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떠올라서 재밌었다.

4회차 활동 사진

2025년 5월 21일

참가자대표 : 천*환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5회차)

북클럽 팀명	천김투박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년 5월 21일(수요일) / 장 소 : CLC 스터디룸 6번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천*환	학번	2020****	이름	박*원
	학번	2021****	이름	김*현	학번	2022****	이름	김*영
	학번	2021****	이름	이*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 토의 내용(읽은 책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

파도 속의 미래알, 개인은 휩쓸릴 수밖에 없는가?

발제자 : 이*현

도서 및 저자 : <군중심리> - 귀스타브 르 봉

토론 주제 및 선정 이유

- 최근 뉴스를 보면 시끄러운 이슈들이 참 많다. 연예계 스캔들부터 정치적 이슈까지.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싸워대기 일쑤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니, 누가 잘못했고 누가 억울하니 등등,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공격하고, 자신의 편은 감싼다. 그리고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 뭉치고, 행동은 점차 과격해진다. 그 속에서의 반대 목소리는 묻히고, 개인은 주류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감하게끔 한다. 우리 북클럽 선정 도서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지만, 동시에 가장 현대적인 책이기도 한 <군중심리>를 통해 개인의 이성적인 행동과 집단의 주류 이념 사이의 간극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한다.

주제

1. 군중 속에서의 개인의 비이성적인 행동의 책임은 어느정도인가?
2. 군중심리를 고려할 때, 대중의 의견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하는가?
3. SNS는 새로운 형태의 군중심리를 만들어내는가?

토론내용

주제 1. 군중 속에서의 개인의 비이성적인 행동의 책임은 어느정도인가?

김*영

- 저자는 책에서 군중 속 개인은 익명성과 동질성에 의해 자아를 상실하고, 감정의 감염과 암시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된다고 말한다. 즉, 한 사람이 군중 속에 들어가면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도 실제로 사람들이 운동 경기나 거리 시위, 콘서트처럼 집단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평소보다 과격하거나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주장이 꽤 설득력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중 속에서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책임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아무리 집단에 휩쓸렸다 하더라도

내가 한 행동이 법적·도덕적 선을 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며, 군중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그 구조 자체가 더 많은 무책임한 행동을 양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처럼 군중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형성되는 시대에는 익명성을 방패 삼아 벌어지는 비이성적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천*환

- 이렇게 휩쓸리는 사례가 스포츠 경기에서의 훌리건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집단으로 과격한 메시지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에 난입한 관중을 향해 환호하거나, 쓰레기나 물병을 투척하여 선수들이 부상을 입는 등의 사건도 일어난 바 있다. 특히 스포츠나 페스티벌처럼 들뜨는 분위기 속의 관중들의 경우 이런 소요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현

- 책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이 책은 상당히 오래된 책이다. 19세기 책. 과거 이론들이 현대에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군중심리>에서는 군중에 속하면 개인은 이성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하고 충동적으로 변한다. 종교 역시 일종의 군중심리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종교가 비이성, 폭력적이라는 말은 아님.
- 결국에는, 집단의 행동에서 '남들은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만 다른 방향을 가진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많이 존재했다. 당시 시대적 가치에 대항하여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거나, 신성시되는 비과학적 가치를 과학적 증명을 통해 밝혀내고 주장하는 행위는 대부분 처벌, 고문, 사형 등 갖가지 방법으로 숙청되고 배제되어왔다. 군중 속에서 개인의 이성적인 행동은 이렇듯 힘을 쓰지 못하고 약해진다. 하지만 행동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동덕여대에서의 시위를 보면,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집단의 행동에 휩쓸려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과격한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에는 개인에게 돌아오게 되어있다. 이것을 제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천*환

- 군중심리에 대해 논하기에 적합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젠더 이슈와도 얽여 있어 사실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사뭇 민감한 주제이지만, 그럼에도 대화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이 시위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과격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현

-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평화노선을 택해서 비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가, 촛불 시위나 비폭력 노조 시위의 경우는 폭력을 쓰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박*원

- 동덕여대 시위 사건을 이야기하셔서 질문드린다. 학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현

- 본인은 학교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도 의견 수렴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

을 거라고 생각한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남녀공학 전환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면 좋을 것 같다.

김*현

- 본인은 반대 의견이다. 이 사건에 학교 책임이 크나 적냐, 혹은 없냐 보다는, 시위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시위는 그때그때 상황에서 폭력적 방향으로 갈지, 비폭력적인 방향으로 갈지는 모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갈린다. 폭력 시위를 택한 학생들의 성향에 대해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 생각해 봤다.

천*환

- 모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본인은, 공격적인 사람들이 의견 대립에서 대부분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폭력과 비폭력의 대립이 있을 경우, 처음에는 이성적이고 차분한 대립이 이루어지지만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 폭언과 물리력을 동원한 대립과 탄압이 벌어진다고 생각한다.

박*원

- 사람들이 많을수록 선동에 따르기 쉽다. 감정적인 싸움으로 가서 인간의 본성과 폭력성만이 남게 되는 모습은 아무래도 건설한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대화가 사라지고 폭력만 남으니 극대화된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군중심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현

- 그렇다면 개인의 책임에 대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박*원

- 개인 책임은 굉장히 많다. 개인이 남들의 행동에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군중심리에 휩쓸린 것이다. 개인에게 모두 책임감을 주는 것은 무겁다. 하지만 집단에서는 그것이 벌어지기 때문에, 책임감의 무게가 사라진다.

이*현

- 무지에서 오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박*원

- 본인 사례로, 남고를 나왔는데 학교 별명이 '선동과 날조의 학교'였다. 본인 학교는 소위 '끼리끼리'가 중요했다. 좋게 말하면 의리가 남달랐다. 밥이나 놀러 갈 때도 한 반씩 우루루 몰려다녔다. 문제는 여기서 힘이 센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것을 다 믿고 따르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어떤 사실에 대한 왜곡, 그리고 선동과 날조가 일어난다. 물론 안 좋은 영향도 많이 일어났다.

이*현

- 좋은 의미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학교폭력처럼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현

- 환경이 개인의 사고를 왜곡시키는 것은 맞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어느 정도 져야 하는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주제 2. 군중심리를 고려할 때, 대중의 의견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하는가?

김*영

- 대중의 의견은 존중하되, 언제나 옳지는 않으며, 대중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중은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이고, 대중의 감정과 요구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 왜곡되거나 집단적인 착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루머나 가짜 뉴스처럼 군중의 판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니 존중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중 여론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혐오를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 결국 대중의 의견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맹신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디지털 시민의식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현

- 주제를 조금 수정해보겠다. 대중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일단 무조건적인 수용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분별한 정보를 받아들이며, 그때그때 마녀사냥식으로 누군가를 매장하고, 누군가를 따라가고 하는 것이 심한 것 같다고 느낀다.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가는 의견의 타당성을 따져볼 책임이 개인마다 있다. 인터넷 뉴스, 특히 정치 관련 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김*영

- 사실 본인도 뉴스를 볼 때, 댓글을 먼저 보고 기사를 읽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현

- 확실히 다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본으로 머릿속에 짜여져 있는 것 같다. 너무 화나는 일이 생길 때면 생각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맞냐 틀리냐의 문제로 간다.

천*환

- 진정한 중립이란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본인은 조금 비판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중립이란 힘들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하겠지만, 주변을 보다 보면 자칭 '진정한 중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먼발치서 지켜보다가 힘 센 쪽에 붙으려는 기회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꽤 있었다.
- 정치 관련도 그렇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최근 배우 故 김새론 씨와 김수현 씨에 관련된 스캔들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다. 댓글이나 반응을 보면 항상 어지럽다. 누가 맞니 누가 틀리니를 가지고 서로를 비방과 욕설로 혈투는 모습은 보기 매우 안 좋았다.

박*원

- 이걸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하는 일인데,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이버 렉카'라고 일컫는, 1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유사언론 채널이나 개인, 팀에서 여러 정보들을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내보내는데 이곳에 휩쓸리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 같다. 좋은 방법은 관심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이다. 아직까지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은 사건이기도 하기에. 더더욱 관심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현

- SNS의 문제점을 논하기에도 좋은 주제 같다. SNS에서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마구 범람한다. 진실을 따르기보다는 대중끼리 의견이 통합되어 버리는 것이라 느낀다. 최근 여러 이슈에서도 전세역전 될 때마다 여기저기 유리한 편에 옮겨다니며 서는, 일관성 없는 통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게 얻은 정보와 선입견을 가지고 대상을 평가하려 한다.

주제 3. SNS는 새로운 군중심리를 만들어내는가?

천*환

-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막강하다. 우리가 믿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추상적인 가치를 따르는 행위는 종교와도 같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작정하고 마음을 먹고 SNS를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김*현

- 본인도 친구와 릴스와 쇼츠를 자주 공유한다. 특히 트렌드나 변화에 민감한 숏폼은 군중심리 조성에 더더욱 좋은 도구 같다. 최근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본인은 원래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던 사람이라 궁금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관련 릴스를 계속 보내니 본인 SNS 알고리즘에 계속 비슷한 내용이 떠서 스트레스를 받고는 한다.

박*원

-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시키는 것 같다.

김*영

- SNS의 힘은 강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숏폼 콘텐츠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밌으로써 소비하는 것들은 수명도 짧고 매우 빠르게 변해간다. 하지만 그 단기간안에 사회의 전체적 흐름을 변화시키고 경제 시스템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관련 상품이 제작되거나, 특정 단어를 보고 같은 것을 연상하게끔 하거나 하는 등.
- 르 봉은 감정의 전염성과 암시, 그리고 익명성 속에서 벌어지는 비이성적 행동을 강조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SNS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요즘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이지 않아도, 해시태그 하나만으로 수만 명이 같은 감정에 휩쓸려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다. 예로 연예인이나 정치인 관련 논란이 생기면 그 사람을 향한 악플과 비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렇듯 사람들은 댓글을 보며 감정을 공유하고, 그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집단적인 비판이나 '사이버 린치' 가한다. 오프라인의 군중보다 훨씬 더 빠르고, 파급력도 더 크다. SNS는 소통의 도구뿐만 아니라 감정과 분위기를 조작하거나 선동할 수 있는 군중심리의 새로운 장이며, 이 공간에서는 더욱 '내가 누구인지'보다는 '군중 속의 일부'가 되기 쉽기 때문에 군중심리가 형성되기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이*현

- 새로운 형태의 군중심리를 만들어내기보다는, SNS 자해가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관념이나 심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매체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문이 됐건 TV가 됐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상 퍼져나갈 수 밖에 없다.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보다는 속도와 범위를 기존보다 크게 늘릴 수 있었던 수단이 바로 SNS다. 앞서 이야기했던 쇼츠나 릴스 등 이런 것들이 진위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퍼져나갈 수 있는 기판이 이미 잘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념이나 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토론 종료 후 소감

이*현

- 책 분량은 짧지만, 오래 된 책이고 심리를 다루는 내용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들 열심히 준비해 와주셔서 토론이 잘 진행된 것 같아 뿌듯하다. 비록 시간이 짧아 3번째 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다른 주제는 그만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박*원

- 팀원들과 이야기하면서 군중들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동시에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또 사이버 공간 내에서 얼마나 집단을 선동하기 쉬운지 알게 되었다. 따라서 군중들을 선동하며 모두가 한가지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때 혼자라도 이러한 행동이 맞는 것인지 생각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믿으며 그러한 생각들을 자신있게 표출해야지만 군중심리에 의한 선동에 쉽게 안 휩쓸린다고 생각한다.

김*현

- 일상 속에서, 특히 SNS에서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을 자주 접하는데,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도 빠르게 변화했던 것 같다. 군중심리에 휩쓸려 행동하는 사람들도 아마 이처럼 순간순간의 전체적 흐름에 따른 행동으로, 때로는 개인의 책임과 이성마저 망각한 채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본인의 책임감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

- 지금까지 진행한 토론 중 가장 체계적으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인 것 같다. 오래 전 책임에도, 거의 150년 가량 후 미래를 내다본 것 같은 책의 내용에 읽으면서 놀라웠던 포인트들이 몇 있었다. 2025년 현재는 개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편리하고 전문적인 수단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대해 더 생각해봐야겠다는 다른 분들의 소감처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회차 활동 사진

2025년 5월 21일

참가자대표 : 천*환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6회차)

북클럽 팀명	천김투박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년 5월 30일(금요일) / 장 소 : CLC 스터디룸 3번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천*환	학번	2020****	이름	박*원
	학번	2021****	이름	김*현	학번	2022****	이름	김*영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 토의 내용(읽은 책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들을 위해

발제자 : 김*현

도서 및 저자 : <표현의 감각> - 한경혜

토론 주제 및 선정 이유

- ‘예민하다’ 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쯤 보았을 법한 무례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솔직하다고 포장하는 모습,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말로 다투는 경우, 비판과 비난 사이의 공격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며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기는 모습들. 우리는 ‘표현’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 주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한다. <표현의 감각>은 소설 책이지만, 소주제가 아주 짧고 다양하게 세분화되어있다. 언어나 표현에 대해 수용과 주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이야기하는 책을 통해 각자의 경험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토론 주제

1. ‘솔직함’의 기준: 무례하고 직설적이게 말하는 것이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로 면죄부가 되는가? 해당 상황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의도와 전달: 상대방이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 오해가 생긴 상황이 있었는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3. ‘비판’과 ‘비난’: 비판과 비난의 차이는 무엇인가?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였을 때, 화자는 어떤 반응을 취해야 하는가?

토론 내용

주제 1. ‘솔직함’의 기준: 무례하고 직설적이게 말하는 것이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로 면죄부가 되는가? 해당 상황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천*환

-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무례한 것이 맞다. 타인의 기분이나 상황을 고려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배워 온 일종의 약속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면 분명히 해가 될 때도 있다. 공/사에 따라 나뉘다던지. 상대

의 기분이라던지.

김*영

- 본인은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그래도 돌려 말하는 것보다는 바로 말하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듯. 물론 상대 기분을 고려하면서 한다.
- 본인의 경험으로, 별뜻없이 했던 말이 친구에게 상처가 된 적도 있었다. 2학년 때 하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중이라, 친한 친구에게 편하게 대하다보니 남들보다 리액션도 적게 하고, 말도 대충대충 하고 그랬던 적이 있다.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그때 잘못했다고 느껴서 사과를 하고, 다시 친한 관계를 유지 중이다.

박*원

- 인간관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한다. 그것을 서로 침해하지 않기 위해 어릴때부터 예의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행동을 보고 싸가지 없다, 혹은 무례하다고 느끼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나는 솔직하니까.'라는 것은 면죄부라기보다는,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천*환

- 하지만 때로는, 솔직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다. 때로는 슬프거나 부정적 신 현실 혹은 사실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심리를 고려해 돌려 말하거나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다.

김*현

- 사회적으로 다들 '솔직함의 미덕'을 말한다. 진심이 담길수록 그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솔직하다는 것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되는 게 아니다.
- 중학교 때, 본인과 동명이인인 배우의 포스터를 들고 와서, 포스터를 보고 '예쁘다' 라고 하고는 본인을 보며 '너 보고 한 거 아니야.' 라며 장난을 치던 친구들이 있었다. 충분히 기분이 나쁠만한 상황이었다. 물론 본인보다 배우가 더 외모가 뛰어나지만, 그것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상대에 대한 존중이 담기지 않은 공격 행위로 받아들여질수도 있다.

천*환

- 직장 상사나, 교수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당사자 앞에서 표출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가령 과제가 과도하게 많다던지, 수업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라던지...

박*원

- 그것이 '눈치'라고 생각한다. 눈치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는 보통 말을 해야 할 상황과 하지 말아야 할 상황을 구별하지 못할 때를 말한다.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한 덕목과도 같다.

천*환

- 우리도 말실수를 할 때가 있듯, 그때그때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 변화를 빠르게 캐치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으며, 이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주제 2. 의도와 전달: 상대방이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 오해가 생긴 상황이 있었는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김*영

- 본인이 오해한 경우가 떠오르는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2학년 때 교내 여러 활동들을 했을 당시 친구가 본인에게 가볍게 던진 말에도 비난하는 말로 느껴져서 정색하며 대꾸했던 경험이 있다. 알고 보니 걱정돼서 한 말이었고, 내가 예민한 상태라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었다.

천*환

- 본인도 알바를 하면서, 사장님과 싸웠던 경험이 있다. 사실 싸울 일은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바쁘다보니 그것 때문에 서로 예민해졌던 것 같다.

김*현

-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친구 메시지의 '작성중' 기능이 자꾸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길래 본인과 장난을 치는건지 의아해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감정이 조금 상했었는데,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 알바 중이었고 사장님과 이야기하고 오느라 그랬다고 했다. 상황을 잘 고려하지 못해 서로 간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좋게 끝났던 경험이 있다.

- 부모님과 전화를 하다 바빠서 끊는 경우로 인해 싸웠던 경험도 있다.

김*영

- 본인은 아버지와 전화할 때 마지막에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한다. 부정적인 대화를 했더라도 끝은 항상 좋게 끝나니 싸움을 잘 안 하게 된다.

박*원

- 본인은 머릿속에서 항상 필터링을 신중하게 하고 말한다.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다보면 없던 화도 생긴다.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편이다. 아버지가 화가 많고 급한 성격이시다보니 반면교사로 삼았던 경험도 있다.

천*환

- 친할수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제 3. '비판'과 '비난': 비판과 비난의 차이는 무엇인가?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였을 때, 화자는 어떤 반응을 취해야 하는가?

천*환

- 비판과 비난은, 논리의 유무라고 생각한다.

김*현

- 억양도 중요하다. 논리가 있어도 억양이나 말투, 목소리에 따라 비난으로 여겨질 수 있다.

김*영

- 비난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리고 비판은 문제해결을 위한 일종의 제시이다.

박*원

- 비난은 메시지를 공격하고, 비판은 메시지를 공격한다. 발언자 주장에 대한 반박과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것은 비판이지만, 발언자 그 자체, 인격을 고역하는 것은 비난이다. 자신의 주장이 먹히지 않거나 허점을 찾기 어려우면 비난을 한다.
-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의 생각처럼 침착하게 텐션을 유지하면서 본인 말의 맥락을 되짚어보면 좀 나아질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비판이 아닌 비난이 맞을 경우엔 정중하게 경고를 주는 쪽이 맞는 것 같다.

토론 종료 후 소감

김*현

- 항상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며 생각을 조금 정리할 수 있었다. 다양한 경험과 각자의 해결책을 들으며 '저런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 또, 화자와 청자의 입장이 무조건 같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나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어서 더욱 공감갔던 책과 주제였던 것 같다.

천*환

- 지금까지 해 온 토론들 모두 좋았지만, 이번엔 자아성찰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김*영

- 이번 토론을 통해 '솔직한 사람'이라는 말이 면죄부가 아니라 위안일 수 있다는 말에 공감하며, 그동안의 나의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대화에서 진심이 담길수록 더욱 차분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려와 존중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겠다.

6회차 활동 사진

2025년 5월 30일

참가자대표 : 천*환